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미도’ 덕분에 마음이 더 컸어요”

신세경, MBC ‘남자가 사랑할때’서 내면 연기 호평

누군가 고뇌와 방황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었다. 최근 종영한 MBC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의 여주인공 서미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인물이다. 비록 그녀를 바라보며 시청자들은 응원하기보다 분노를 느꼈지만... 신세경은 드라마 방영 중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자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 앞으로 미도의 행동은 저도 손을 못 쓸 정도”라며 “이제는 미도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BS

Table listing EB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평화방송, 치평동 시대 개막... 오늘 준공식

광주평화방송(사장 김희환 신부)이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새 사옥에서 ‘새 사옥 축복 미사’와 준공식을 연다. 광주대학교장인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교구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하는 축복 미사에는 운공교 대주교를 비롯해 평화방송 사장단, 수도자, 신자, 광주평화방송 후원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준공식에는 이형석 광주시경계부시장과 권오봉 전남 도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준공식에서는 그동안 평화방송에 도움을 준 주요 인사들에게 이사장과 사장 감사패가 수여된다. 지난 1996년 6월2일 개국한 광주평화방송은 지난 17년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에서 지역 사회의 인건화, 복음화, 민주화를 방송이념으로 삼고 그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 지난 4월 29일 금남로 시대를 마감하고 치평동 새 사옥으로 이전해 전파를 쏘아올리고 있다. 새 사옥은 전체면적 726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150석 규모의 회의실과 3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종합방송센터로 건립됐다. 특히 사옥 이전과 함께 첨단 디지털 장비 방송 시설을 전면 교체해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 현장인 가톨릭센터를 5·18 아카이브(자료관)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providing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TV 하이라이트

Three TV highlights: 89세 할머니의 노래 인생 (89-year-old grandmother's singing life), 암환자가 화순을 찾는 이유는 (Reasons cancer patients seek Hwasun), '설하수증' 두살배기 희망여행 (Two-year-old's hope trip for 'Seolhasu-jung').